

##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임효진  
중앙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용서의 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하였고,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가해나 피해의 지각에서 최종적인 용서의 단계까지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용서한 집단과 용서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또한 사과와 공감이 용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용서한 집단에 비해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인지, 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용서한 집단은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해자에 대하여 공감이 높게 나타났고, 용서한 후에 마음이 풀어지고 친밀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이전의 친밀함과 알고 지낸 기간이 공감을 증가시키고, 회피 및 보복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용서 과정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 상대방의 사과와 뉘우침은 공감을 증가시키고 회피 및 보복 동기를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과를 받은 모든 응답자가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용서하지 않은 이유로는 '뉘우치지 않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뉘우침과 용서 받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를 통해 달라진 점과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인간적으로 성숙하였으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응답들이 나왔다.

주요어 : 용서, 사과, 공감, 회피, 보복

심리학 내에서의 용서에 관한 연구가 서구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용서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지난 10년간 주로 이뤄졌는데, 대개는 발달 및 임상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한 부인을 둔 남편들의 화와 슬픔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감소시켰다는 연구(Coyle & Enright, 1997)가 있다. 국내에서도 오영희

(1995)가 한을 치유하기 위해 용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해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김광수, 1999; 오영희, 1990; 이경순, 1998, 2002; 이광수, 1997, 2002, 2004; 이호선, 2004)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용서에 대해 이해를 돕는 사회 심리학적 틀은 아직까지는 드문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서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용서의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또한 용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5-B00003).

김기범은 성균관대학교 재직중이고, 임효진은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처: 김기범,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66purple@paran.com

서와 관련하여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과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전통적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인간이 가지는 갈등에 대한 가장 고차원적 해결 방식으로서 용서는 하나의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하기 힘든 크나큰 사랑과 자비의 표현으로 여겨지면서 인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신적인 행위라는 위상으로 분류되어 오기도 하였다(Morrow, 1984).

유교문화권에서 공자는 인(仁)과 애(愛)를 근본 사상으로 서(恕)의 덕목을 충(忠)과 함께 중요시하라고 가르쳤고, 맹자는 ‘強恕而行이면 求仁이 莫近焉’이라 하여 힘써 너그럽게 행하면(노력하여 남을 자기처럼 생각하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인을 구하는 길이 더없이 가깝다라고 하였다.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뉘뉘미’가 그 사람의 도덕성 판단에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데(김기범, 김양하, 2004; 김기범, 임효진 2005a, 2005b; 김의철, 박영신, 2004; 임효진, 김기범, 2004; 한규석, 최송현, 정욱, 배재창, 2004),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즉 된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윤리규범을 지키는 사람으로, 아직까지 유교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것도 인을 행하는 된 사람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특히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용서 행위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 왔다. 신약 성서에서는 ‘용서하다(avfi, hmi, 아피에미)’라는 뜻의 단어만 해도 145 회나 언급되고 있으며, 주기도문 역시 용서가 기도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이호선, 2004). 이와 같은 용서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용서가 비단 신의 행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행위이어야 한다는 윤리적 믿음과 해석을 통해 신학 뿐 아니라 서구 철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Derrida, 2001).

그러나, 용서가 전통적으로 신학적, 철학적, 윤리적인 주제로 이해되면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에서는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이래로 서구의 심리학자들에게 의해서 용서의 긍정적 기능과 대인관계에서의 역할에 대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험적 연구, 특히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이 분야의 연구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구의 심리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용서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다(Kearns & Fincham, 2004). Heider(1958)는 용서를 보복 행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고, 최근에 Maltby, Macaskill 과 Day (2001)는 용서의 과정은 보통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혹은 그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일어나는데, 용서는 개인이 이러한 사건들의 고통스런 기억을 처리하려는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용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극복하려는 신중한 노력이고, 이는 대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부정적인 쪽에서 보다 동정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을 요한다.

반면에, McCullough 등(1997)은 용서는 관계를 헤치는 반응을 멈추고 자신에게 파괴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 건설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상의 전환이라고 정의했다. 대인간 용서는 일련의 동기적 변화로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1) 점차 가해한 당사자에 대한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2) 가해자와의 소원함을 지속시키려는 동기를 감소시키며, 3) 가해자의 가해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의와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용서는 그 자체로 동기는 아니라, 오히려 용서란 것은 사람들이 가해한 당사자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보복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가 감소되고, 화해 행동을 추구하는 동기가 증진될 때 일어나는 전환을 기술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용서와 유사한 개념인 화해(Reconciliation)는 오랫동안 용서에 뒤따르는 결과인지 혹은 용서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Enright과 Human Development Group(1994)은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는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화해 없는 용서는 불완전한 것이며, 용서에는 화해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간의 차이는 용서 그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이 취하는 용서에 대한 입장과 연구에 이용하는 모델의 차이와 관련

된다(Scobie & Scobie, 1998). 가령, 용서가 주변의 다른 자극 없이도 개인내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일원적인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용서가 화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용서를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양방향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화해는 용서에 뒤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김기범과 임효진(2005a)이 용서를 행위 위반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화(火)와 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해소시키는(releasing)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또한 임효진, 김기범, 2004). 또한 용서는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 회피하려는 동기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심리적 기능을 함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긴 시간을 요하는 느린 과정이다(Kearns & Fincham, 2004; McCullough, Worthington, Jr., & Rachal, 1997; Wade & Worthington, Jr., 2003). 그러나 용서가 상대방의 위해에 의한 마음을 풀 상태나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마음을 풀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화해나 관계를 지속하거나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보다 정세하고 심층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행위 위반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화와 마음의 상처를 해소시키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해 마음을 풀 상태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용서에 관한 연구들은 성격과 같은 심리적 속성으로서의 용서 연구(Wade & Worthington, Jr., 2003), 용서를 촉진하거나 매개하는 심리적 개념(사과나 감정이입 등)에 대한 연구(McCullough, Worthington, Jr., & Rachal, 1997; Takaku, Weiner, & Ohbuchi, 2001), 용서에 따른 심리적 결과(주관적 안녕감, 화해, 회피 등)에 관한 연구(Sells & Hargrave, 1998 참고) 등이 있다

#### 용서와 개인적 속성

용서를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의 문제로 이해하는 입장들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개인적 성격 특질이 용서 행동을 촉진하고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성격 특질로서,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 가운데서 호의성(agreeableness)이 용서를 촉진시킨다고 여겨지는가 하면(Mauger, Saxon, Hamill, & Pannell, 1996, McCullough et al., 1998에서 재인용), 개인의 신앙심이 높을수록 용서가 더 잘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입장(Mullet,

Barros, Frongia, Usaie, Neto, & Shafighi, 2003)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서적인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을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들 중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Ashton, Paunonen, Helmes, & Jackson, 1998; Berry, Worthington, Parrott, O'Connor, & Wade, 2001). 이처럼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용서를 촉진하는지를 살펴보는 일군의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비(非)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역으로 용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구들도 있다.

한편, 용서하고자 하는 경향 자체를 개인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여 용서할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용서 측정 도구로는 Hargrave와 Sells(1997)의 대인간 관계 해결 척도(Interpersonal Relationship Resolution Scale, IRRS), Pollard, Anderson, Anderson과 Jennings(1998)의 가족 용서 척도(Family Forgiveness Scale, FFS), DeShea(2003)의 용서 경향성 척도(Willingness to Forgive Scale, WFS), Mullet 등(2003)의 용서 척도(Forgiveness Scale), Trauma Research Education과 Training Institute(1999)의 화해/용서 척도(Reconciliation/Forgiveness Measure) 등이 있다 이들 척도들은 모두 용서를 개인의 기질적 성향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용서 척도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용서를 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경향성, 또는 용서를 촉진하는 특정한 개인의 성격 또는 기질적 특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용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성격 연구들은 성격 변인이 개인의 대인간 적응 및 대처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른 행동 변인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용서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성격 특성 일부가 대인관계에서의 적응과 대처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용서 경향성을 증진 또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개인의 특정한 성격 특질은 용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한 측면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타적이거나 동정심이 많은 사람 타인배려적인 사람은 용서할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용서 기질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왔으며, 종교적 신념이 높은 사람 또한 용서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McCullough, 2001).

#### 용서의 심리적 과정

용서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 연구자들은 용서가 태도 및 동기, 행동상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Worthington, Kurusu, Collins, Berry, Ripley, & Baier, 2000). Weiner의 귀인 정서 행동 모델은 용서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 심리학적 모델로 꼽히고 있다(Bradfield & Aquino, 1999; Takaku, 2001; Takaku, Weiner, & Ohbuchi, 2001). 그에 따르면 가해에 대한 귀인, 즉, 통제 가능성, 통제 위치, 안정성 등이 부적 또는 정적 정서로 이어지고, 이 정서가 다시 용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해/상처가 일어난 시점에서 시작하여 피해자의 용서 행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른 용서 과정의 추이를 살펴면서 용서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상의 단계는 가해 및 피해의 경험, 해의 지각과 이에 대한 부정적 귀인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상쇄하는 가해자의 사과와 같은 외부 변인과 공감(empathy) 또는 보복 동기와 같이 용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 그리고 용서 행동과 이에 뒤따르는 용서 이후의 기능 및 효과 등으로 이루어진다.

용서의 심리적 과정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촉진제나 매개 요소는 사과라 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가해자가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면 여기에 응하는 보상 즉 용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용서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과가 용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McCullough et. al, 1997; Takaku et. al., 2001).

사과가 용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처럼 널리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며, 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도 상대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뤄져 온 편이다(Darby & Schlenker, 1982, 1989; Ohbuchi,

Kameda, & Agarie, 1989). 특히 Ohbuchi 등(1989)은 가해 행위 이후에 가해자의 반응이 용서 또는 비용서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가해 행위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을 때,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용서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사과 표시만으로는 용서 행동을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최근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Takaku, Weiner, & Ohbuchi, 2001; Zechmeister, Garcia, Romero, & Vas, 2004).

공감은 여러 연구들에서 용서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지적되고 있다(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Batson과 동료들(1997)은 공감이 이타행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공감 이타주의 가설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용서의 과정에 내재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설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설명해주는 데는 적절하지 몰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Takaku, 2001). 그럼에도, 동일 연구에서 공감을 촉진할 수 있는 관점 수용 조작이 용서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공감은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용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Wade & Worthington, 2003).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과 용서가 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해 사건의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가해 지각(harm perception)을 분석하고자 했고, 가해로 인한 해와 상처의 정도, 가해에 대한 책임과 비난에 대한 귀인, (비)용서 전후의 화나 분노 등에서의 경험 내용 및 반응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가해에 대한 반응(blame ascription)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세 번째로 대인관계 용서에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가해자의 사과가 용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부터 용서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경로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용서의 심리적 과정 및 개인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용서한 경험과 용서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자유기술식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개인차 변인으로 정(情) 성향을 측정하였고, 가해 사례, 사과여부, 동성심 유발 보복 여부 등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 조사대상자

서울에 소재한 종합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50명(남자 71명 평균연령 24세, 여자 79명 평균연령 22세)과 성인 150명(남자 74명 평균연령 27세, 여자 76명 평균연령 33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수업 중에 설문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였고, 성인들은 대학원생들과 일반인들을 공동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만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용서한 경우가 150명(남자 90명, 여자 60명), 용서하지 않은 경우가 100명(남자 54명, 여자 46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24세,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31세였으며, 전체 평균연령은 27세였다

### 도구 및 절차

조사는 용서한 경우와 용서하지 못한 경우 두 가지를 실시하였고, 개방형 질문지와 척도를 사용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가해자를 생각하면서 알고 지낸 기간 및 관계와 사건의 내용을 기술하게 하였고, (비)용서 전후의 친밀감, 화, 귀인(해, 상처, 책임, 비난, 의도), 보복 및 회피동기(TRIM), 공감(empathy), 사과, 용서 및 비용서 후 마음 상태 등을 Likert 5 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다. 조사는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대상자들은 지시문을 읽고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을 작성한 후에, 용서한 경험과 용서 못한 경험으로 구분해 본인들이 경험을 상기하면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보복동기척도 (TRIM)

McCullough 등(1997)이 개발한 위반관련 동기 측정도

구(Transgression Related Inventory of Motivation; 이하 TRIM)을 사용하여 보복동기를 측정하였다. TRIM은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복 동기와 회피 동기 두 가지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TRIM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동의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들이 10 점 척도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10점으로 하는 10점 척도로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하여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회피 동기를 나타내는 7문항의 설명변량은 53.55%이었고 신뢰도( $\alpha$ )는 .91로 나타났으며, 보복 동기(5문항)의 설명변량은 16.0%, 신뢰도는 .92로 나타났으며, TRIM 척도의 신뢰도는 .92이었다.

### 공감

기존 용서 연구에서는 Batson 등(1997)과 Davis(1983)이 개발한 공감 척도 등이 용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자는 영문 형용사로 이루어진 문항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의미가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후자는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공감을 설명하는 데 적절치 못했다. 따라서 위의 두 척도의 내용을 참조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임효진과 김기범(2004)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 이었다

질문 내용은 '공감'과 '이해'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 두 개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다',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공감에 대해 정의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두 문항, '인간적인 연민을 느낀다', '상대방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한다', '상대와 있었던 좋은 기억만 생각하려고 애쓴다'와 같이 대인간 갈등 상황과 특히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공감 네 문항을 포함시켰다.

### 용서 및 비용서 후 마음상태

용서와 함께 비용서 후 마음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10 개의 문항을 임효진 등(2004)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위의 다른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10점으로 표시하게 하는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선, 용서를 한 후 경험한 내용들을 측정하기 위해 ‘마음이 풀렸다’, ‘화가 풀렸다’,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 ‘상대가 진심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등 다섯 개의 문항을(신뢰도  $\alpha=.86$ ), 비용서의 개념으로는 ‘상대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상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상대를 포기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 등 네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  $\alpha=.78$ ).

**분석**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범주화를 통해 잠재변인 범주를 추출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없는 대학원생 3명이 개별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유목화하여 이를 비교 및 토론을 통해 유목화된 범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유목화된 범주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결 과**

대인간 용서나 비용서 경험자들의 가해자와의 관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72명, 30%), 군대 관계(39

표 1. 가해자와의 관계 내용분석 결과

분 류	사 례	사례수(%)
친 구	초, 중, 고 대학 친구	72 (30.00)
군 대	군대 간부, 선임, 후임, 동기	39 (16.25)
이 성	여자친구, 남자친구, 호감 가는 이성	34 (14.17)
친 척	시부모님, 시숙, 시누이, 친척 등	24 (10.00)
가 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 배우자	21 ( 8.75)
선후배	선배, 후배	16 ( 6.67)
직 장	직장 상사, 직장 선배, 동료	13 ( 5.42)
기 타	이웃, 고객, 집주인, 남편 친구 등	21 ( 8.75)
전 체		240 (100)

명, 약 16%), 이성 친구(34명 약 14%), 친척(24명 10%) 등으로 나타났다. 여자 응답자 가운데 기혼인 경우 시댁 식구 등라는 응답이 22명 등 큰 숫자를 차지했다. 미혼 응답자 가운데서는 친구 다음으로 이성친구라는 응답이 많았으며(전체 응답의 14.17%),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전체 응답의 8.75%).

피해를 경험한 사건들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시/외면/배척(N=30, 약 13%)’, ‘금전적/물질적 피해(N=25, 약 11%)’, ‘괴롭힘(N=25, 약 11%)’, ‘구속/간섭/강요(N=18, 약 8%)’, ‘배신행위(N=17, 약 8%)’, 사회적 관계 해침(N=16, 약 7%)와 그밖에 속임 이기적 행동, 신체적 폭력, 정신적 상처, 언어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피)해 종류의 내용분석 결과

분 류	사 례	사례수(%)
무시/외면/배척	의견 무시, 이유 없는 외면, 하인 부리듯 함	30(13.45)
금전적/물질적피해	명의 빌리거나 돈 빌리고 돈 갚지 않음	25(11.21)
괴롭힘	심한 장난, 왕따시킴, 트집 스토킹 등	25(11.21)
구속/간섭/강요	강압적 지시, 과잉보호, 지나친 요구	18( 8.07)
배신 행위	바람림, 여자친구 가로챌	17( 7.62)
사회적 관계 해침	타인과 관계 방해, 이간질	16( 7.17)
속 입	사기, 거짓말, 그럴 듯한 말로 현혹	12( 5.38)
이기적 행동	나를 이용함	11( 4.94)
신체적 폭력	구타, 폭력, 성폭행 등	11( 4.94)
정신적 상처	마음에 상처를 줌	10( 4.48)
언어 폭력	기분 나쁜 말, 언어적 모독	7( 3.14)
내 가족에게 피해	내 부모님 무시, 가족을 궁지로 몰, 내 아이 차별	6( 2.69)
의무/역할 저버림	공동 과제 저버림, 공사구분 안함, 부모부양 미룸	4( 1.79)
기 타	의견 충돌, 내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줌,	31(13.9)
전 체		223(100)

용서/비용서 집단간 차이 분석

용서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용서한 집단에 비해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더 높은 부정적 정서와 지각된 해/상처, 부정적 귀인, 회피/보복 동기를 보였고, 유사 용서 점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용서한 집단에 비해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더 높은 부정적 정서와 지각된 해/상처, 부정적 귀인, 회피/보복 동기를 보였고, 비용서 점수 역시 용서한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용서한 경우에도 용서 전후의 친밀감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 $t=6.31, p<.001$ )했고, 용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11.49, p<.001$ ). 공감에서는 용서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로 인한 회피와 보복동기는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사과 후 용서할 마음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약 70%, 상대가 뉘우쳤을 경우 약 50%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 한 이유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들으르 내용분석한 결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N=48, 약 35%$ ), 시간이 지나서( $N=22, 약 16%$ ), 관계 때문에( $N=13, 약 9%$ ), 나 자신을 위해서( $N=11, 약 8%$ ), 잊었기 때문에( $N=11, 약 8%$ )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하지 못한 이

유로는 의도나 인간됨이 나빠서( $N=18, 20.93%$ ), 피해/상처가 너무 커서( $N=12, 13.95%$ ), 상대방이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서( $N=12, 13.95%$ ) 순으로 나타났다. 용서가 안되는 이유로는 가해자의 의도가 나빴기 때문에( $N=18, 약 21%$ ), (피)해, 상처가 너무 커서( $N=12, 약 14%$ ), 상대가 노력안함( $N=12, 약 14%$ ), 관계 기대 위반( $N=9, 약 11%$ )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분석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피해자가 경험한 심리적 상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용서나 비용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화 정서반응과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로 가해(자)에 대한 회피나 보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용서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회귀분석하였다.

알고 지낸 기간과 가해의 책임, 가해(자)의 의도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심리적 상처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안 기간과 가해(자)의 의도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R^2=.14, t=2.84, p<.01$ )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상대방의 가해가 의도적이라고 지각될수록 피해자는 상처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해로 인한 화 반응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9, t=6.62, p<.001$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공감은 이전에 친밀감의 정도와 화의 정도 및 안 기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에 친밀할수록, 화가 적게 날수록 그리고 안 기간이 길수록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밀감, 화, 안 기간이 회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R^2=.19, t=-2.87, p<.01$ ), 친밀감이 적

표 3. 용서/비용서 집단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차이검증

	전체평균 (SD)	용서한 집단 (N=150)	용서 안한 집단 (N=100)	t
지각된 해	7.85(1.94)	7.68(2.10)	8.09(1.65)	n.s.
지각된 상처	8.03(1.99)	7.74(2.19)	8.46(1.57)	-3.00**
화	8.42(1.79)	7.99(2.02)	9.01(1.18)	-4.81***
잘못 귀인	7.73(2.38)	7.47(2.43)	8.04(2.29)	n.s.
책임 귀인	7.36(2.50)	7.25(2.45)	7.49(2.51)	n.s.
비난 귀인	8.20(1.99)	8.11(1.85)	8.29(2.14)	n.s.
의도 귀인	6.13(2.79)	5.49(2.80)	7.08(2.50)	-4.69***
회피 동기	5.47(2.58)	4.58(2.37)	6.90(2.26)	-7.45***
보복 동기	3.20(2.17)	2.47(1.51)	4.37(2.52)	-7.23***
비용서 후 마음	5.05(2.97)	4.02(2.54)	6.62(2.90)	-7.10***
가해 이전 친밀	6.12(2.90)	6.53(2.72)	5.51(3.06)	2.76**
가해 이후 친밀	3.88(2.81)	5.12(2.71)	2.08(1.81)	9.72***
공감	4.94(2.23)	5.71(2.08)	3.68(1.90)	7.45***
용서 후 마음	4.89(2.31)	6.03(1.95)	3.17(1.67)	11.30***

\* $p<.05$ , \*\* $p<.01$ , \*\*\* $p<.001$

표 4. 친밀감, 안기간, 해, 화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R	R <sup>2</sup>	β	t
친밀감	.410	.168	.339	4.59***
화	.488	.238	-.282	-4.11***
안기간	.515	.265	.178	2.41*

\* $p<.05$ , \*\*\* $p<.001$

표 5. 보복동기, 회피동기 및 공감에 용서(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R	R <sup>2</sup>	β	t
보복동기	.795	.632	-.569	-5.78 ***
공 감	.830	.690	.329	3.35 ***

\*\*\*  $p < .001$

을수록, 화가 많이 날수록 그리고 안 기간이 짧을수록 회피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과 화가 보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R^2 = .11, t = 3.39, p < .01$ ), 친밀하지 않고 화가 많이 날수록 보복하고 싶은 동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서를 하려는 의도나 행동에는 회피동기와 공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R^2 = .69, t = 3.35, p < .001$ ), 회피동기가 낮을수록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할수록 용서를 할 의도나 용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이 풀렸다는 반응 ( $M = 6.07$ ) 이 용서를 하지 않은 경우 ( $M = 3.21$ )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공감과 가해 행위자에 대한 보복 및 회피동기가 용서의 의도나 행동 및 회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것 처럼, 보복동기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해자를 공감할수록 용서하려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하려는 행동은 보복동기와 회피동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피동기 보다는 보복동기 ( $R = .819, R^2 = .671, t = 7.18, p < .001$ ) 가 높을수록 상대방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과와 용서의 관계 분석

다음으로 가해자의 사과 및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과 용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과를 받았다고 보고한 집단에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공감이 높게 나타났고 용서 후 마음상태와 친밀함의 회복, 누우

표 6. 사과 여부에 따른 주요 변인들에 대한 차이검증

	사과 받은 집단 (N=97)	사과 안받은 집단 (N=150)	t
지각된 상대방의 누우침	5.69(2.18)	3.28(2.10)	8.422 ***
가해 이후 친밀	5.28(2.99)	2.99(2.29)	6.309 ***
공 감	5.76(2.22)	4.38(2.10)	4.769 ***
용서 후 마음상태	5.88(2.34)	4.26(2.10)	5.339 ***
용서에 필요한 기간	5.62(3.55)	6.77(3.57)	-2.411 **
회피 동기	4.43(2.58)	6.17(2.37)	-5.335 ***
보복 동기	2.59(1.83)	3.58(2.30)	-3.655 ***
비용서 후 마음상태	4.13(2.78)	5.64(2.95)	-3.826 ***

\*\*  $p < .01$ , \*\*\*  $p < .001$

침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회피동기와 보복동기 등은 낮게 나타났고 비용서 후 마음상태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은 응답자들 ( $N = 22$ ) 은 사과 받고도 용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냥 용서가 안된다', '누우침이 없고 달라진 게 없다',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을 했고, 비록 가해 직후에 느꼈던 화의 정도 ( $M = 9.14, SD = 1.35, N = 21$ ) 가 사과 직후에는 눈에 띄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 $M = 6.86, SD = 2.54, N = 21$ ), 여전히 화가 남아 있었다.

사과를 받고도 여전히 화가 나는 이유로는 '상대방이 아직 달라진 게 없으므로',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어서',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남', '아직도 미워하므로', '상대방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으므로', '개심의 여지가 안 보임', '또 그럴 게 뻔하므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한 상대방이 용서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82명의 응답자로부터 서술형 응답을 얻었고, 분석 결과 17가지의 노력 범주를 얻었다. 이 결과를 다시 노력한 경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적반하장의 세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서한 집단에서는 전체의 절반에

표 7. 가해자의 노력의 종류 및 집단별 분포

분 류	사	례	용서한 집단	용서 안한 집단
노 력	잘	대해준, 행동에 변화, 보상, 사과, 물질적 배품, 등	46.9%	13.04%
노력없음	아무	노력 하지 않음	38.94%	66.67%
적반하장	발뺌,	잘못한 것도 모름, 외면, 등	5.31%	14.49%



가까운 46.9%가 상대방이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한 반면,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노력에 대한 보고는 13%에 그치는 대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보고와 오히려 상대가 발뺌하고 적반하장을 보였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의 80%에 이르고 있다

용서의 심리적 과정 경로분석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경로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가 실험을 통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용서와 관련하여 측정된 변인들간의 이론적 혹은 경험적 선행관계를 근거로 경로를 탐색적으로 실시하였다.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설정하였는데,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경우 보복행동 및 회피행동의 경로와 두 번째로 용서한 경우의 두 가지였다. 첫 번째 경로는 해로 인한 화 정서 반응이 보복 및 회피행동으로 이어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로이고, 두 번째 경로는 가해자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사과나 노력이 공감에 영향을 미쳐 용서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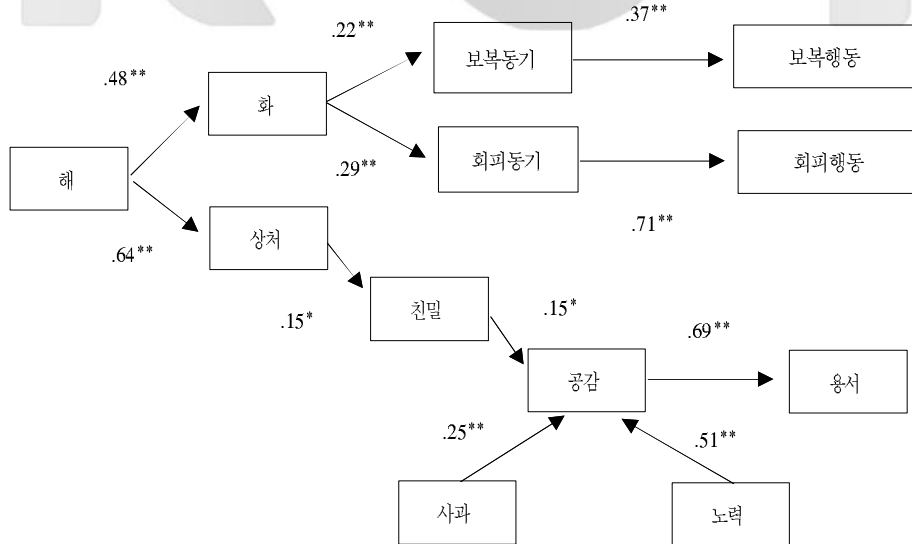
그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가해로 인한 상처보다는 가해에 대한 화 정서적 반응이 보복동기와 회피동기에 영향을 미쳐 보복행동과 회피 반응으로 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로 인한 화 정서 반응은 보복동기 보다는 회피동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복행동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회피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많은 것으로 결과되었다.

두 번째로, 가해로 인한 상처는 가해자와의 친밀감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가해자와 친밀할 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가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공감은 가해자의 사과나 노력으로 인해 증가되고 이는 곧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마음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591.09(p=0.0)$ , RMSEA=.19, RMR=.21, GFI=.75, CFI=.59). 그러나 본 경로모형은 적합도 지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나 적합성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용서는 대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해 상처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



\* $p < .05$ , \*\* $p < .01$

그림 1. 용서의 심리적 과정 경로분석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노와 증오, 불안 등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용서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조사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의 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하였고 용서와 관련하여 가해 사건으로부터 보복이나 공감에 이르는 과정과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각된 피해/상처 정도와 화 정서반응이 회피와 보복 동기 및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회피와 관계에 대한 포기 등과 같은 비용서와 큰 관련이 있었다. 반면, 공감은 위의 요인들과는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한 집단과 용서하지 않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용서한 집단에 비해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서 가해 상대방에 대해 더 높은 부정적 정서(화), 부정적인 귀인(잘못, 책임, 비난, 의도), 부정적인 동기(회피, 보복)를 보고하였다. 가해 이전의 친밀함과 이후의 친밀함의 정도와 공감, 용서 의도 및 용서에 있어서도 용서 집단과 비용서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용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비용서 집단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고, 용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용서 집단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용서 집단과 비용서 집단에게 각각 용서한 이유와 용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용서 집단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거나 공감했다고 응답하여, 용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공감이라는 기존의 연구들(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Takaku, 2001; Wade & Worthington, 2003)과 맥을 같이 했다. 한편, 용서하지 않은 이유로는 의도나 인간됨, 마음씀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비용서 집단 전체 응답자의 1/3 가량이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았고 가해자로서 보여야 할 마음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지낸 기간과 친밀감으로 측정하였는데, 해/상처 정도에 가해자

와 알고 지낸 기간이 영향을 미쳤고, 안기간과 가해 이전 친밀함이 공감과 회피 동기에 둘 다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해 이전의 친밀함은 보복 동기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친밀했던 관계는 가해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 관계를 통한 믿음과 신뢰, 안정감 등을 깨뜨리게 하고 이것이 해/상처를 더 크게 지각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이처럼 친밀하고 오랫동안 알아온 관계는 해나 상처를 더 큰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줌으로써 용서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더 큰 해나 상처를 지각하더라도, 이전의 친밀했던 관계는 보복과 회피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동기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관계의 질이 용서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Maltby, Macaskill, & Day, 2001; McCullough, Worthington, Jr., & Rachal, 1997)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용서가 일어나기까지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과정 전반에 걸쳐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인의 관계주의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좀더 신중히 논의되어야겠지만, 관계가 한국인들의 용서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하겠다.

사과와 노력의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사과를 받았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한 집단에 비해 가해한 상대방이 더 많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이후 관계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용서함으로써 마음이 더 많이 풀어지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과를 받지 않은 집단은 사과 받은 집단에 비해 용서에 소요되었거나, 용서하려면 필요한 기간이 더 길었고 회피/보복 동기가 높았으며, 용서가 아닌 단순한 망각과 포기, 회피 등의 유사 용서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과를 받은 응답자들이 모두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사과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은 22명의 조사대상자들이 사과 후에 느꼈던 화와 그 이유, 사과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술형으로 응답한 내용을 분

석한 결과, 여전히 화가 남아 있는 이유와 사과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이유 모두로 '뉘우침'과 '달라진 점'이 없고,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이 뉘우치는 모습은 지각된 해와 상처, 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감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보였고, 용서한 집단과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서 서술형으로 각각 보고한 상대방의 노력 내용을 살펴보면, 용서한 집단에서는 44.25%가 상대방이 용서받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고 심지어 발뻠하거나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을 보였지만 스스로 용서했다고 응답한 반면, 용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81.16%의 응답자가 상대방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보여 용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노력은 용서하지 않는 주요 이유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사과의 말이나 물리적인 보상만으로는 용서에 이르기엔 충분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용서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서한 집단에서 보고한 용서 이후 달라진 점과 용서를 함으로써 좋아진 점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고 인간적으로 성숙되었으며,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반응들이 나타났다. 용서의 기능이 단지 심리적인 안정과 마음의 위안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인관계를 이어가야 할 지에 대한 삶의 통찰과 인간적 성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간적 성숙 및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용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과 추후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본 연구에 응답한 남 여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이 남자 24세, 여자 31세로 7세 가량 차이가 나므로, 성차에 따라 있을지 모르는 대인간 용서 과정 및 용서 행동의 차이가 간과되고 있다. 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경험하고 이해와 높은 정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 자료의 결과가 성차에서 비롯된 것인지, 연령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업과 연령대를 같이 하고 성비를 맞추어 성차에 따른 용서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용서 집단과 비용서 집단 내에서 성비에 따른 개인적 특성(신앙심 등)에 편차가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성비를 맞추는 문제가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노력의 개념을 더 정교하게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 행동 및 결과에 대해 보상하고 만회함으로써 용서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 설계로 노력과 사과, 응분의 대가와 처벌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서는 제 3자 수준이 아닌, 1 : 1의 관계에서 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관계의 질적인 수준이 용서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노력과 관련하여 보다 정교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용서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발전을 한다고 보았던 Enright의 모델이 한국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용서의 발달적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 행동을 단지 '용서했다'와 '하지 않았다'로 단순히 구분함으로써 용서 행동을 일회적이고 순간에 그치는 행동이라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시간이 필요한 일련의 변화로서 용서의 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펴기 위해서는 용서의 형태 및 종류, 또는 발달상의 단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용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용서의 질적인 이해를 풍부히 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경험적인 모델 검증을 거치지 않고 Enright 등(1994)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기존의 국내 연구 실정에 비추어 이들 서구의 모델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부합되고 어떤 차이를 보일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용서 과정과 용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직접 겪었던 실제 대인관계 위반 및 갈등 상황에 대해 각자 회상을 통해 응답하게 함으로써 용서가 요구되는 상황 및 용서 과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지나, 이러한 접근법은 너무나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정도의 대인관계 위반 및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서 용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통제된 실험이 후속으로 요구된다. 특히 (피)해 및 상처의 정도 및 종류 등이 통제된 시나리오를 사용하

여 용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 및 용서 성향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범, 김양하 (2004). 자의식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 및 심리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8(3), 29-45.
- 김기범, 임효진 (2005a). 용서의 심리적 과정 분석 : 관계 이해, 사과와 인고가 용서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41-47.
- 김기범, 임효진 (2005b). '사람됨' 준거 위반과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火)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3), 1-21.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도덕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3), 103-129.
- 오영희 (1990). 용서의 발달 : 친구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4(2), 247-273.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이경순 (1998). 용서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7(2), 325-332.
- 이경순 (2002). 용서 현상학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1(3), 388-397.
- 이광수 (1997). 용서 모델과 청소년 상담. 청소년상담연구, 5(1), 145-182.
- 이광수 (2002). 용서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 이광수 (2004). 경험과학적 용서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18(4), 33-49.
- 이호선 (2004). 용서와 화해의 성서적 모델. 노년기 부부성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8, 193-222.
- 임영식 (1993). 핑계 듣는 사람의 특성과 핑계 유형이 핑계 대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호감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효진, 김기범 (2004). 용서의 심리학 :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관용적인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317-318.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8(1), 1-16.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7(2), 21-38.
- 최인재 (1999). 정(情), 우리성, 체면(體面)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심리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규석, 최송현, 정옥, 배재창 (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8(1), 23-39.
- Ashton, M. C., Paunonen, S. V., Helmes, E., & Jackson, D. K. (1998). Kin altruism, reciprocal altruism,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19, 243-255.
- Batson, C. D., Sager, K., Garst, E., Kang, M., Rubchinsky, K., & Dawson, K. (1997). Is empathy-induced helping due to self-other mer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95-509.
- Berry, J. W., Worthington, E. L., Jr., Parrott, L. III., O'Connor, L. E., & Wade, N. G. (2001). Dispositional forgiveness :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transgression narrative test of forgiveness (TNT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277-1290.
- Bradfield, M., & Aquino, K. (1999). The effects of blame attributions and offender likableness on forgiveness and revenge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

- ment, 25(5), 607-631.
- Coyle, C. T.,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042-1046.
- Darby, B., & Shlenker, B. (1982). Children's reactions to ap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42-753.
- Darby, B., & Shlenker, B. (1989). Children's reactions to transgression: Effects of the actor's apology, reputation and remors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353-364.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36.
- Derrida, J. (2001).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Shea, L. (2003). A scenario-based scale of willingness to forgive.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 201-217.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4). Piaget on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Human Development, 37*, 63-80.
- Hargrave, T. D., & Sells, J. N. (1997). The development of a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1), 41-62.
- Kearns, J. N., & Fincham, F. D. (2004). A prototype analysis of forg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7), 838-855.
- Maltby, J., Macaskill, A., & Day, L. (2001). Failure to forgive self and oth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personality, social desirability and gener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881-885.
- McCullough, M. E. (2001). Forgiveness: Who does it and how do they do it?. *Psychological Science, 10*(6), 194-197.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orrow, L. (1984). Why forgive? *Time, 9*, 26-33.
- Mullet, E., Barros, J., Frongian, L., Usai, V., Neto, F., & Shafiqhi, S. R. (2003). Religious involvement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9.
- Ohbuchi, K., Kameda, M., & Agarie, N. (1989). Apology as aggression control: Its role in mediating appraisal of and response to ha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219-227.
- Pollard, M. W., Anderson, R. A., Anderson, W. T., & Jennings, G. (1998). The development of a family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95-109.
- Scobie, E. D., & Scobie, G. E. W. (1998). Damaging events: The perceived need for forgivenes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28*(4), 373-401.
- Sells, J. N., & Hargrave, T. D. (1998). Forgiveness: A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1-36.
- Takaku, S. (2001).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A dissonance-attribution model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4), 494-508.
- Takaku, S., Weiner, B., & Ohbuchi, K-I. (2001).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forgivenes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0*(1-2), 144-166.
- Wade, N. G., & Worthington, E. L. Jr. (2003). Overcoming interpersonal offenses: Is forgiveness the only way to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343-353.
- Worthington, E. L. Jr., Kurusu, T. A., Collins, W.,

Berry, J. W., Ripley, J. S., & Baier, S. N. (2000).  
Forgiving usually takes time : A lesson learned by  
studying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1), 3-20.  
Zechmeister J. S., Garcia, S., Romero, C., & Vas, S. N.

(2004). Don't apologize unless you mean it : A  
laboratory investigation of forgiveness and retali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4), 532-564.

K C I

## **An Exploration of Psychological Process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 Focused on Effects of Empathy and Apology on Forgiving Behavior**

**Kibum Kim**

Sungkyunkwan University

**Hyojin Im**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forgivenes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ictims who forgave and those who did not. In ad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how empathy and apology affect the process of forgiveness. A total of 250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wa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ile those who did not forgive the offender reported high scores in negative emotion, cognition, and motivation, as well as in unforgiveness, those who forgave the offender reported high scores in empathy, intention and behavior of forgiving, which cause to be disentangled from the hurtful event and reconcile with the offender.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offender's apology and regrets increased the victim's empathy directly facilitated forgiving and decreased TRIM-avoidance and TRIM-revenge. Finally, respondents who forgave the offender reported various positive functions of forgiveness, including gaining insights of life, personal growth, self-improvement, and reconciliation, as well 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Key words : forgiveness, revenge, empathy, apology, reconciliation**

원고접수 : 2006년 3월 10일

심사통과 : 2006년 4월 8일